

# 태양탐사선 '파커' 이카루스 꿈 싣고 발사

### 11월 태양 궤도 진입 목표...태양풍 포함 대기 탐사 수행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이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발사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오전 3시 3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 31분)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에서 '파커 태양 탐사선' (Parker Solar Probe)을 발사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탐사선은 델타 IV 로켓에 실려 상공으로 쏘아 올려졌다. 파커 탐사선은 태양 대기층의 가장 바깥에 있는 코로나를 통과하며, 태양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인 태양풍을 포함해 태양의 대기를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오랜 두 가지 의문, 즉 태양풍은 어떻게 가속을 하는 것인지, 또 코로나로 명명된 태양의 외부 대기가 표면보다 더 뜨거운 이유를 밝히는 것이 과제다.

탐사선은 태양열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11.5cm 두께의 방열판으로 제작됐다. 탐사선 외부는 1370℃(화씨 2500도)까지 달아오르지만, 내부는 29.5℃(화씨 85도)에 머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탐사선은 오는 10월에 금성을 빠르게 지나 11월에 태양의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후 7년간 태양 주위를 24차례 근접해 돌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탐사선은 태양 표면으로부터 약 600만 km 이내까지 다가가는 등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기존에 태양에 가장 근접한 탐사선은 1976년 발사된 헬리오스 2호였다. 파커 탐사선이 올라가 태양 대기의 22번째 궤도에

진입하면 헬리오스 2호의 기록을 깨고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이어 파커 탐사선은 코로나에 더 깊이 진입해 시간당 69만km의 속력으로 움직이며 운행이 이뤄진다. 이는 뉴욕에서 서울까지를 1분 만에 이동하는 속도다. 이날 탐사선의 발사를 지켜보기 위해 수천 명이 모였다. 이 중에는 60년 전 태양풍의 존재를 예측한 유진 파커(91) 박사도 포함됐다. 이번 탐사선은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NASA가 우주선에 생존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이번 사업에는 15억 달러(한화 약 1조7000억 원)가 투입됐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니키 폭스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우리는 준비가 됐으며, 우리가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45> 시성 두보

두보(杜甫, 712-770)의 자는 자미로 하남성 공현 출신이다.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대대로 관리 집안으로 조부 두심언은 측천무후에서 중종 시기에 걸쳐 활동한 시인이었다. 마오쩌둥이 "나는 이백을 좋아합니다. 도사의 기질이 있는데 두보는 소시주의 입장에 있었습니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가력(家祿) 때문이다. 20세 무렵 4년에 걸쳐 오월(吳越) 지방을 편력했다. 735년 낙양에서 과거를 치렀으나 낙방했다. 다음해 황하 하류 지방의 여행에 나서 4년여를 소비했다. 741년 섬서성 흥농 출신의 사농소경 양이의 딸과 결혼했다. 744년 낙양에서 이백을 만나 깊이 교류하였다. 섬서성 석문에서 이백과 헤어진 후 '겨울날 이백을 그리워하다'와 '봄

마시다(曲江對酒), 곡강에서 비를 맞이하(曲江對雨) 등이 대표 시다. '외상 슬픔은 항상 가는 곳마다 있고, 인생 철심은 예로부터 드물다'라는 명구절도 여기서 탄생했다. 이후 장안 동쪽 화주의 사공참군으로 좌천되었다. 민생으로 시선을 돌려 전성으로 고생하는 민초의 삶을 생생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병기를 씻는 노래(洗兵行)를 거쳐 삼리삼별(三吏三別)에 이르게 된다. (동관리), (신만리), (석호리), (신혼별) 등 여섯 수로 구성되었는데 백성들의 고통과 부패 무능한 왕조에 대한 고발로 접찰되어 있다. 759년 벼슬을 버리고 감속의 진주로 떠났다. 77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년의 방랑이 시작되었다. 진주와 동쪽을 거쳐 쓰촨성 청두에 안착했다. 완화계 주위에 초당을 짓고 주옥같은 시를 완성했다. 겸남양천절도사로 부임한

### 시문을 삶의 기둥으로 삼은 선비

날 이백을 그리워하다라는 두편의 시를 남겼다. "어느 때나 한 동이 술로 다 시험게 시를 논할까"(何時一樽酒重與細論文)는 이 때 남긴 시 구절이다. 746년 장안에서 관직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755년 44세 되던 해 겨울에야 뜻을 이루었다. 755년 범양절도사 안록산이 난을 일으켰다. 낙양과 동관을 돌파해 756년 장안에 입성했다. 현종은 사천으로 피난가고 황태자 이형이 영무에서 숙종으로 재위에 올랐다. 두보는 가족을 이끌고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섬서성 강촌에 머물렀는데 숙종의 행재소로 가는 중 반군에 잡혀 장안에 압송되었다. 가족을 그리는 마음 속에서 서경시 춘망(春望), 애강두(哀江頭) 등이 탄생했다. "나라는 깨졌지만 산천은 남아 봄이 온 성에는 초목이 무성하네"(國破山河在城春草木深)로 시작되는 춘망은 전쟁의 참화를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명시다. 757년 봉상으로 탈출해 좌승유에 임명된다. 그러나 한달만에 정쟁에 휘말린다. 재상에서 파면된 방관을 변호하다 숙종의 분노를 사 삼사에서 심문을 받게 된 것이다. 아일로 정쟁을 떠나 강촌의 가족과 재회하였는데 장안이 수복되자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다. 장안 생활은 의욕을 잃은 채 술로 보낸 세월이었다. 곡강에서 술을

업무의 도움으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후 영무가 40세에 급서하자 기주, 강릉, 공안을 거쳐 약주로 옮겨 다녔다. 기주에서 최고의 칠언율시 등고(登高)를 완성한다. 약주에서는 악양루에 올라(登高臨眺)라는 절창을 짓는다. "친척도 벗도 소식 하나 없고 늙고 병들어 외로운 배한적 달랑 있을뿐"이라는 구절은 두보의 처절한 삶을 잘 표현한다. 죽음에 관해서는 형주 주변의 뇌양 현령이 보내준 술과 소고기를 먹고 그날 저녁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역사가 귀머무는 뇌양에서 부패된 소고기를 먹고 죽었다고 주장한다. 시인은 약주 평강현에 묻혔으며 813년 손자 두사업이 낙양 수양산 아래로 이장했고 시인 원진이 묘지명을 썼다. 기이하게도 그의 무덤은 전국에 여덟 곳이나 된다고 한다. 후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이용하려다 일어난 헤프닝이다. 두보는 경학과 시문을 삶의 기둥으로 삼아온 선비의 전형이다. 시에 경제 제민을 강조하고 백성의 고통을 묘사한 내용이 많은 것은 그의 충의관(忠義觀)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일이다. "강직하여 뜻을 얻지 못했으므로 가슴 속의 생각이 시로 통해 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시인의 인품과 시의 품격이 일치한다.



5개국 정상, 카스피해 활용원칙 협약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이 12일(아스타나 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를 열어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까지 영해로, 다음 10해리까지 배타적 조업수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협상을 주도한 러시아 대통령실은 카스피해 대부분이 공동 이용 수역으로 관리되고, 해저 자원은 각국에 분할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의를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2번째) 러시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가운데)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오른쪽 네번째) 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5개국 정상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영 맨체스터 총격, 12명 부상...용의자 미궁

#### 테러 연관성 아직 못 밝혀

영국 맨체스터에서 12일(이하 현지시간) 축제가 끝난 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다쳤다. 영국 BBC방송과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맨체스터 경찰은 알렉산드라 공원에서 캐리비안 축제가 11일 밤 개막한 뒤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께 인근 모스사이드 거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포함한 12~50세의 부상자들이 주로 다리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남성 1명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기총에 쓰이는 탄환이 발사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총기는 두 차례가량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장

에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던 축제 참가자 케모이 워커는 총성이 처음 들렸을 때는 풍선이 터지거나 유리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인줄 알았지만, 이후 2번의 총성이 더 들린 뒤 비명 등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고 영국 BBC방송에 말했다. 워커는 총싸움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담배라 뒤에 몸을 숨겼고, 이후 부상자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고 앰블런스가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기 위

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TV를 조사하는 한편 축제 참가자 등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테러 연관성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일단 살인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1972년부터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축제의 첫날 1만6000명이 운집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맨체스터 아레나에서는 작년 5월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난 직후 매포스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한 적 있다. /연합뉴스

##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의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투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투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투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투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휴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영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4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7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안남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5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영안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안남동 남양이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